SIGNATURE 3.0

READ THIS PARAGRAPH

시그니처 수능영어 기출분석서 3.0

시험장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전략

SIGNATURE 3.0

READ THIS PARAGRAPH

시그니처 수능영어 기출분석서 3.0

어떻게 쓸까요?
이 책이요.

1. 이 책은요, 유형별로 문제를 배분해놓은 책이 아니라, 수능영어 기출에 대해서 완벽히 분석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앞에 있는 이론 파트 (한 문제씩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개념학습을 하신 다음에, 뒤에 기출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가끔 이 교재를 그냥 시중 기출 모음 문제집처럼 유형별로 슥슥 푸시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를 온전히 누리시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론 파트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 뒤에 기출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집을 펴서 꼼꼼히 읽어주세요!

2. 시그니처에서의 독해학습과 더불어 꼭 구문/어휘에 대한 지속적 학습을 해주세요.

영어 기출문제는 여러번 회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파트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푸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지를 읽으면서 사고과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그리고 거기에다가 구문과 어휘에 대한 피드백 역시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수능영어는 해석과 이해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독해는 시그니처가 책임질 것이니, 단어와 구문, 꼭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능영어에서 1등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SIGNATURE 3.0

READ THIS PARAGRAPH

시그니처 수능영어 기출분석서 3.0

INDEX
뭘 하나요?

INTRO

Comprehension

수능영어 독해의 핵심 개념

INTRO 1 모든 글에는 문장간의 유기성이 있다.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변형]

INTRO 2 표현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변형]

INTRO 3 구체적인 문장은 일반적 문장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 [2016학년도 수능 지문 변형]

INTRO 4 글이 나뉘면 나누어서 읽는다 – A/B 대조 논리 –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INTRO 5 대신하는 표현은 늘 정확히 해석해야만 한다.

INTRO 6 문장간의 논리관계도 잘 따질 수 있어야만 한다.

INTRO 7 Paraphrasing 연습하기 (재진술 연습)

PART A

Comprehension

1. 대의파악

1. 대의파악 (1) 중요한 것은 Fact check다 예제 –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제목

2. 대의파악 (2) 일부의 내용으로 정답이 되지 않는다 – 2013학년도 수능 제목

3. 대의파악 (3) 다 있더라도 논리적 관계를 고려하자 – 2011학년도 수능 제목

4. 대의파악 (4) 세부적인 정보에 치여 큰 그림을 잊어선 안된다. – 2019학년도 수능 제목

5. 대의파악 수능 실전 기출문제

SIGNATURE 3.0

READ THIS PARAGRAPH

시그니처 수능영어 기출분석서 3.0

INDEX
뭘 하나요?

PART A

Comprehension

2. 어휘

1. 어휘 (1) 선택지 구성은 대개 반의어이다. –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2. 어휘 (2) 내용 그 이상의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라 – [2017학년도 수능]
3. 어휘 (3) 가끔은 낯설게 인과를 물어보기도 한다. –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4. 어휘 (4) 문장 내에서 어휘가 모순되기도 한다 –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5. 어휘 수능 실전 기출문제

3. 빈칸추론

1. 빈칸추론 원칙 (1) 빈칸은 늘 주관식으로 설정한다 –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2. 빈칸추론 원칙 (2) 선택지 역시 독해의 대상이다. –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3. 빈칸추론 풀이법 (1) 재진술 –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4. 빈칸추론 풀이법 (2) 일반화 – [2017학년도 수능]
5. 빈칸추론 풀이법 (3) G-S구조 – [2014학년도 수능]
6. 빈칸추론 유의사항(1) A/B 대조논리에 대한 숙지 – [2016학년도 수능]
7. 빈칸추론 유의사항(2) 과잉인과에 대해 조심하자 – [2019학년도 수능]
8. 빈칸추론 유의사항(3) 기준은 흩어져있을 수 있다 – [2019학년도 수능]
9. 빈칸추론 유의사항(4) 디테일을 챙기자 – [2019학년도 수능]
10. 빈칸추론 유의사항 (5) 인과는 정해져있다 – A style –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11. 빈칸추론 유의사항 (5) 인과는 정해져있다 – B style – [2013학년도 수능]

SIGNATURE 3.0

READ THIS PARAGRAPH

시그니처 수능영어 기출분석서 3.0

INDEX
뭘 하나요?

PART A

Comprehension

3. 빈칸추론

12. 빈칸추론 유의사항 (6) 논리적 관계를 따지자 – [2013학년도 수능]
13. 빈칸추론 유의사항 (7) 너무 심한 재진술은 준다 – [2013학년도 수능]
14. 빈칸추론 Advance (1) 이해가 아니라 연결이다 –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15. 빈칸추론 Advance (2) 고난이도 빈칸은 결국 복잡한 연결이다 – [2014학년도 수능]
16. 빈칸추론 Advance (3) Practice
17. 빈칸추론 수능 실전 기출문제

4. 의미추론

1. 의미추론의 핵심은 유기성에 기반한 이해이다 –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2. 의미추론 수능 실전 기출문제

5. 요약문 완성

1. 요약문 완성 (1) 요약문부터 읽자 & Search –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2. 요약문 완성 (2) 함축하는 경우에는 다 읽어야 한다
3. 요약문 완성 수능 실전 기출문제

SIGNATURE 3.0

READ THIS PARAGRAPH

시그니처 수능영어 기출분석서 3.0

INDEX
뭘 하나요?

PART B

Technique

1. 문장삽입 A type(가시적 근거)

1. 문장삽입 A type(가시적 근거) – (1) 남음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2. 문장삽입 A type(가시적 근거) – (2) 방향성 – [2016학년도 수능]
3. 문장삽입 A type(가시적 근거) – (3) 인과추론 –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4 문장삽입 유의사항 – CODE는 언제든 섞일 수 있다 – [2017학년도 7월 교육청]
5. 문장삽입 A type(가시적 근거) 수능 실전 기출문제

2. 문장삽입 B type(내용상 흐름)

1. 문장삽입 B type(내용상 흐름) (1) 같은 말끼리는 붙어있어야 한다 –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2. 문장삽입 B type(내용상 흐름) (2) G-S구조/재진술을 활용할 수 있다 – [2020학년도 사관학교]
3. 문장삽입 B type(내용상 흐름) (3) 과정-순서의 흐름 –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4. 문장삽입 B type(내용상 흐름) (3) 과정-순서의 흐름 연습 –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5. 문장삽입 B type(내용상 흐름) 수능 실전 기출문제

SIGNATURE 3.0

READ THIS PARAGRAPH

시그니처 수능영어 기출분석서 3.0

INDEX
뭘 하나요?

PART B

Technique

3. 글의 순서

1. 글의 순서 (1) 순서에서 가시적 근거를 활용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 [2013학년도 수능]
2. 글의 순서 (2) 하지만, 가시적 근거만큼이나 독해력도 매우 중요하다 – [2018학년도 수능]
3. 글의 순서 (3) G-S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4. 글의 순서 (4) 같은 말은 붙어 있어야만 한다 (문장의 위상에 대하여) –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5. 글의 순서 (5) 글의 흐름을 구획할 수 있어야만 한다. –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6. 글의 순서 (6) 논리 관계/세밀한 표현 등은 순서에서도 역시 중요하다 –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7. 글의 순서 + 글의 구조는 Tip 으로만 알아두자
8. 글의 순서 수능 실전 기출문제

4. 무관한 문장 고르기

1. 무관한 문장 고르기 (1) 대부분은 멍멍이 소리이다 – [2018학년도 수능]
2. 무관한 문장 고르기 (2) 소재는 동일하지만, 방향성이 차이나는 경우를 조심하자. – [2016학년도 사관학교]
3. 무관한 문장 고르기 수능 실전 기출문제

SIGNATURE 3.0

READ THIS PARAGRAPH

시그니처 수능영어 기출분석서 3.0

INTRO

INTRO 목차

INTRO 1 모든 글에는 문장간의 유기성이 있다.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변형]

INTRO 2 표현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변형]

INTRO 3 구체적인 문장은 일반적 문장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 [2016학년도 수능 지문 변형]

INTRO 4 글이 나뉘면 나누어서 읽는다 – A/B 대조 논리 –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INTRO 5 대신하는 표현은 늘 정확히 해석해야만 한다.

INTRO 6 문장간의 논리관계도 잘 따질 수 있어야만 한다.

INTRO 7 Paraphrasing 연습하기 (재진술 연습)

INTRO

Comprehension

1. 모든 글에는 문장간의 유기성이 있다

영어영역에서 전해지는 고전적인 속담(?)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한 문단내에서는 하나의 주제만을 이야기 한다.' '영어 영역 지문내에는 통일성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의 단락에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며, 문장간에는 모두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지문 내에는 '유기성'이 있는 것이죠.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얼마나 그렇게 읽고 있나요? 학생들은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 글을 읽는데 능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고, 우리는 그것이 가시적인 것이든 (가령 대명사, 대동사와 같은), 아니면 논리적인 것이든 적극적으로 이으며 독해 해야합니다. 즉 앞문장의 내용을 끊임 없이 되뇌이며, 뒷 문장을 이해해가야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어영역 지문을 독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변형]

In 2001, researchers at Wayne State University asked a group of college volunteers to exercise for twenty minutes at a self-selected pace on each of three machines: a treadmill, a stationary bike, and a stair climber. Measurements of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and perceived effort were taken throughout all three workouts. The researchers expected to find that the subjects unconsciously targeted the same relative physiological intensity in each activity. Perhaps they would (A) [automatically / intentionally] exercise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 regardless of which machine they were using. Or maybe they would instinctively settle into rhythm at 70 percent of their maximum rate of oxygen consumption in all three workouts. But that's not what happened. There was, in fact, no consistency in measurements of heart rate and oxygen consumption across the three disciplines. Instead, the subjects were found to have chosen the same level of perceived effort on the treadmill, the bike, and the stair climber.

* treadmill: 러닝머신 ** physiological: 생리학적인

Q 위의 문제를 풀고, (A) Part 정답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아래의 어구는 지문에 있는 표현 중 어떤 표현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시오.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 / at 70 percent of their maximum rate of oxygen consumption

INTRO

Comprehension

Solution!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유기성'이 있습니다. 그 유기성이라는 것은 다 같은 말이라는 '일률적 적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 관계(역접,대조,예시, 상술,부연 등..)를 내포하면서도 이해의 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의 유사성을 계속 이어가면서 독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문 (출제 됐던 유형은 어휘문제였습니다)의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결국 지문에 반복되지만, 계속해서 겉표면만 달라지는 표현들을 얼마나 이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에서도 (A)파트의 어휘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결국 밑에 Question에서 물었듯이,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 / at 70 percent of their maximum rate of oxygen consumption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Comprehension

In 2001, researchers at Wayne State University asked a group of college volunteers to exercise for twenty minutes at a self-selected pace on each of three machines: a treadmill, a stationary bike, and a stair climber.
20분동안 참가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속도에 맞추어 세 가지 운동기계에서 운동을 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Measurements of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and perceived effort were taken throughout all three workouts.
그럼 운동을 하면서 뭘 측정했느냐? '심박수, 산소 소모량, 인지된 운동 강도' 세가지 운동 내내 측정됐다고 합니다.

The researchers expected to find that the subjects unconsciously targeted the same relative physiological intensity in each activity.
연구진들이 실험을 통해서 기대했던 가설은, 피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상대적으로 같은 생리학적 강도'를 각각의 활동에서 겨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리학적 강도 (physiological intensity)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당연히 지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perceived effort는 결국 '생리학적' 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physiological intensity =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perceived effort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리학적 강도가 다 어떨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상대적으로 같은' 수준의 생리학적 강도를 피험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겨냥 할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Perhaps they would (A) [automatically / intentionally] exercise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 regardless of which machine they were using.

(그들=피험자) 들은 아마도 그들의 최대의 심박수 기준 65퍼센트 수준으로 운동할 것인데, 이게 '자동적'(automatically) 이냐, '의도적'(intentionally)냐를 골라야합니다. 일단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the same relative physiological intensity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리학적 강도를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무의식적으로' 겨냥'할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즉 at 65 percent of their maximum heart rate는 결국 생리학적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의도 역시 '무의식적'일 것입니다. 그럼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라는 말의 automatically가 될 것입니다.

2. 표현에 대해 말바꾸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유기성을 잘 따져야하는 까닭은, 결국 그것이 빈칸추론, 어휘 등 글의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들의 출제의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 새로 등장한 '의미추론'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유기성을 대놓고 물어보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성을 제대로 따지기 위해서는 각 문장에 대해서 앞에 나온 말들로 말바꾸어 내기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기성을 잘 따지는 사람과 잘 따지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문장을 읽어도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는 속도 or 정확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래의 문제를 통해 유기성을 연습해보도록 합시다.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변형]

Erikson believes that when we reach the adult years, several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stimuli trigger a sense of generativity. A central component of this attitude is the desire to care for others. For the majority of people, parenthood is perhaps the most obvious and convenient opportunity to fulfill this desire. Erikson believes that another distinguishing feature of adulthood is the emergence of an inborn desire to teach. We become aware of this desire when the event of being physically capable of reproducing is joined with the events of participating in a committed relationship, the establishment of an adult pattern of living, and the assumption of job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Erikson, **by becoming parents (=A) / we learn that we have the need to be needed by others who depend on our knowledge, protection, and guidance. (=B)** We become entrusted to teach culturally appropriate behaviors, values, attitudes, skills, and information about the world. By assuming the responsibilities of being primary caregivers to children through their long years of physical and social growth, we concretely express what Erikson believes to be an inborn desire to teach.

Q 위의 글을 읽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문장과, 검은색으로 진하게 표시되어진 문장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구획 되어진 A와 B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INTRO

Comprehension

Solution!

유기성을 잘 따진다는 것은 결국 문장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도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장이 완벽히 같은 문장인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지문입니다. 특히 뒤에 문장삽입 파트에 가서 설명드리는 '같은 말은 붙어있어야한다' 라는 원칙에 기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 붙어있어야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 문제의 관건은 '이 두 문장이 서로 같은말'인지 알 수 있느냐에 달려있었습니다. 같이 이해해보시죠.

Comprehension

지문의 앞부분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하지만, 이 지문은 문장삽입 기출 파트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므로 일단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받은 물음, **즉 저기 초록색 문장과 검은색 진한 문장 두 문장이 어떤 사이인지에 대해서 집중해보도록 합시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같은 문장'입니다. 그것도 완벽히 대응이 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읽으실 수 있으셨나요? 그게 수능영어에서 중요한 유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성은 그냥 그렇게 읽으면 좋다 가 아니라 정답을 내냐 못내냐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꼭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즉 '다른표현, 같은 의미'를 정확하게 Catch하셔야 지문을 읽어내려가는데 수월하다라는 것이죠 !

Erikson believes that another distinguishing feature of adulthood is the emergence of an inborn desire to teach. We become aware of this desire when the event of being physically capable of reproducing is joined with the events of participating in a committed relationship, the establishment of an adult pattern of living, and the assumption of job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Erikson, **by becoming parents (=A) / we learn that we have the need to be needed by others who depend on our knowledge, protection, and guidance. (=B)**

먼저 검은색으로 진하게 된 문장을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part에서는 '부모가 됨으로써' 라고 하고 있고, B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보호, 그리고 안내에 의존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필요되어지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걸 알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각각 어떻게 대응될까요?

초록색 문장을 먼저 나눠보자면, We become aware of this desire 의 부분과 When절이 시작하는 부분으로 두 파트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We become aware of this desire 부분에서 this desire은 초록색 문장 앞에 있듯, an inborn desire to teach를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우리가 가르치려는 타고난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초록색 문장에서 앞부분을 이해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부분은 바로 검은색으로 진하게 된 B part와 같은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We become aware of this desire (=an inborn desire to teach) = we learn that we have the need to be needed by others who depend on our knowledge, protection, and guidance. 와 같은 말인 것이라는 것이죠. 더 세부적으로 해체시켜보자면, this desire, 즉 가르치려는 타고난 욕구가 바로 우리의 지식, 보호, 안내에 의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필요되어지는 욕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식과 보호, 안내를 제공한다라는건 결국 가르치려 한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we become aware of라는 부분은 we learn과 같은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재진술이 완벽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mprehension

그렇다면 A part, 즉 by becoming parents는 초록 색 문장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when 부사절, 즉 when the event of being physically capable of reproducing is joined with the events of participating in a committed relationship, the establishment of an adult pattern of living, and the assumption of job responsibilities.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을 해보자면, 물리적으로 번식이 가능한 일 (being physically capable of reproducing) 이 지속적 관계, 그리고 생계에 대한 어른적 방식의 성립, 직업적 책임을 맡는 것과 합쳐질 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부모가 되는 것, 즉 by becoming parent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져있는 문장과 검은색으로 진하게 표시되어진 문장이 같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듯, 두 문장이 같은 문장이지만, 서로 다른 표현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보라는 것을 Catch해야합니다. 이 문제는 뒤에 다시 문장삽입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제가 해설해드리겠지만, 결국 이런 재진술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Paraphrasing (재진술) Training

수능영어의 근간은 결국 '재진술'이라고 하는 Paraphrasing에 있습니다. 하지만 독해력이 조금 모자란 친구들은 어떤 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재진술 문장들부터 시작해서, G-S 구조까지 우리가 직접 대응시키는 주관식 문항들을 답하는 (단순히 빈칸만 주관식으로 뚫어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용어를 문장내에서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사실 수능영어 지문을 구성하는 핵심원리이기 때문에 여러 유형 (어휘, 문장삽입, 빈칸추론 등) 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15문제에 대해서는 맞고 틀리고에 대한 고민은 좀 줄이고, 정말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해설지가 가리키고 있는 생각의 방향을 따라가보면, 수능에서 어떤 글읽기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01 Science is making the future, and nations are busy making future scientists. The more science that emerges from this investment, the greater the need for us to follow the gist of the science with sufficient understanding. In other words, if we the ordinary people are to keep pace with science, we need more science writers, and more science writing that is clear, wise and eloquent, and that demands to be read.

두 부분간의 관계가 'In other words'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밑줄 친 부분에서 과학작가 (science writers) 들이 필요하고, 과학 글쓰기 (science writing)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In other words 앞에서 찾아 쓰시오.

02 Why bother with the history of everything? Today, we teach and learn about our world in fragments. In literature classes you don't learn about genes; in physics classes you don't learn about human evolution. So you get a partial view of the world.

밑줄 친 a partial view는 역사가 제시되고 있는 문두의 내용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응해보시오.

03 Any fleeting thoughts suggesting that we might be at fault typically are overcome by more powerful self-justifying thoughts: "I don't mean any harm. I'm just! I'm fair! It's the others who are wrong!"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is nature of the human mind as its natural state. In other words, humans don't have to learn self-justifying, self-serving, self-deceptive thinking and behavior.

밑줄 친 부분에서 '학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쓰시오.

11 In school, there's one curriculum, one right way to study science, and one right formula that spits out the correct answer on a standardized test. Textbooks with grand titles like The Principles of Physics magically reveal "the principles" in three hundred pages. An authority figure then steps up to the lectern to feed us "the truth." As theoretical physicist David Gross explained in his Nobel lecture, textbooks often ignore the many alternate paths that people wandered down, the many false clues they followed, the many misconceptions they had. We learn about Newton's "laws" —as if they arrived by a grand divine visitation or a stroke of genius — but not the years he spent exploring, revising, and changing them. The laws that Newton failed to establish —most notably his experiments in alchemy, which attempted, and spectacularly failed, to turn lead into gold — don't make the cut as part of the one-dimensional story told in physics classrooms. Instead, our education system turns the life stories of these scientists from lead to gold.

* lectern: 강의대 ** alchemy: 연금술

① discovers the valuable relationships between scientists
② emphasizes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new scientific theories
③ mixes the various stories of great scientists across the world
④ focuses more on the scientists' work than their personal lives
⑤ reveals only the scientists' success ignoring their processes and errors

밑줄 친 turns the life stories of these scientists from lead to gold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고, 결국 그 답이 어떤 문장에서 부터 시작하여 반복되어져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시발점이 된 문장을 꼽아보시오.

12 Our kitchens owe much to the brilliance of science, and a cook experimenting with mixtures at the stove is often not very different from a chemist in the lab: we add vinegar to red cabbage to fix the color and use baking soda to counteract the acidity of lemon in the cake. It is wrong to suppose, however, that _____. It is something more basic and older than this. Not every culture has had formal science —a form of organized knowledge about the universe that starts with Aristotle in the fourth century BC. The modern scientific method, in which experiments form part of a structured system of hypothesis, experimentation, and analysis is as recent as the seventeenth century; the problem-solving technology of cooking goes back thousands of years. Since the earliest Stone Age humans cut raw food with sharpened flints, we have always used invention to devise better ways to feed ourselves.

① science has nothing to do with philosophy
② a hypothesis can be proved by a single experiment
③ technology is just the appliance of scientific thought
④ cooking has always been independent from formal science
⑤ food is cooked only through the problem-solving technology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고, 정답의 선택지가 지문에 어느 부분에 근거를 두고 그런 표현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지문에서 정확히 찾으시오.

PART A Comprehension

빈칸추론 풀이법 (1) 재진술

이해영역(Comprehension)

빈칸추론의 풀이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지문에서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재진술'과, 나열된 지문의 내용들의 공통점들을 발견하여 문제를 푸는 일반화입니다. 재진술은 지문의 내용이 그대로 빈칸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쉬운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그 같은 말들이 '같은 표현'으로 표현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른 표현'으로 쓰여진 '같은 말'들을 어떻게 이해해 낼 것인가?의 대답은 당연히 '유기성'입니다. 그것이 이해에 기반이 되는 것이 됐던, 아니면 지문의 논리에 의한 기계적인 것이 됐던 결국 같은말을 찾는 것은 '유기성'이며, 빈칸 풀이 방법 중 재진술은 유기성에 의해 찾아진 '같은 말, 다른 표현'을 빈칸에 집어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Q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that moderates the relationship with behavior is self-efficacy, or a judgment of one's capability to accomplish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People who have a high sense of self-efficacy tend to pursue challenging goals that may be outside the reach of the average person. People with a strong sense of self-efficacy, therefore, may be more willing to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 to attempt tasks or goals for which success is viewed as improbable by the majority of social actors in a setting. For these individuals, _____. For example, Australians tend to endorse the "Tall Poppy Syndrome." This saying suggests that any "poppy" that outgrows the others in a field will get "cut down;" in other words, any overachiever will eventually fail. Interviews and observations suggest that it is the high self-efficacy Australians who step outside this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 to actually achieve beyond average.

*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 ** endorse: 지지하다

① self-efficacy is not easy to define
② culture will have little or no impact on behavior
③ setting a goal is important before starting a task
④ high self-efficacy is a typical quality of Australians
⑤ judging the reaction from the community will be hard

PART A Comprehension

Solution!

재진술은 결국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한 근거를 잡아 집어넣는 풀이 방법을 뜻합니다. 재진술의 핵심 기본원리는 바로 '유기적인 말바꿈' 입니다. 같은 말들이 형태만 바꾸어 반복될 때, 그 반복되는 말을 빈칸에 집어넣는 것이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추론'을 묻기도 합니다만, 상식선에서 당연한 추론 만을 묻습니다 (수능 시험 특성상 이는 당연한 것일 겁니다.) 아래의 문제는 글이 약간 이해가 안됐다 하더라도 재진술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경우였습니다. 먼저 재진술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지문에 대한 구체적 이해는 플러스 자료로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Comprehension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that moderates the relationship with behavior is self-efficacy, or a judgment of one's capability to accomplish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 행동과 관련된 관계들을 조절하는 개인적 특성은 '자기 효능감'이거나 혹은 어떤 특정 수준 행위를 성취하려는 능력에 대한 판단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eople who have a high sense of self-efficacy tend to pursue challenging goals that may be outside the reach of the average person.

–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평균적인 사람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eople with a strong sense of self-efficacy, therefore, may be more willing to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 to attempt tasks or goals for which success is viewed as improbable by the majority of social actors in a setting.

– 자기효능감이 높은사람들은 그러므로, 훨씬더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일이나 목표들을 성공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회적 배우들에 의해 있을법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들에 도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문장과 뒷 문장이 (therefore, 인과) 라는 순접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나아가는 것'(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도전적 목표 추구' (pursue challenging goals~)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therefore),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된다면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문의 논리를 이용하여 재진술을 적극적으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ART A Comprehension

Comprehension

For these individuals, _____ .

– 이러한 개인들에게는, '빈칸' 할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se individuals는 누구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읽었듯이 People who have a high sense of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어땠는지 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빈칸의 논리는 무엇이죠? 도전적 목표추구, 문화적 종속 X 일 것입니다. 즉 앞의 논거들이 그대로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를 기준으로 선택지를 바로 보도록 합시다.

② culture will have little or no impact on behavior

– 정답은 2번 선택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기준은 도전적 목표추구, 문화적 종속 X 이니까, 문화가 행동에 영향을 거의 안미치거나, 아예 안미친다라는 내용은 결국 문화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 라는 말의 재진술 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cf) 뒤에 For example은 안 읽어도 되나요?

글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합니다. 지문 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Detail을 왜곡하여 오답선택지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답선택지를 만드는 Detail의 왜곡이 뒤에 안읽은 부분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글은 무조건 꼼꼼하게 다 읽어야만 합니다. 다만 해설지의 효율상 '재진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가장 focus 맞추어 작성하기위해 해설을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때 시험에서 "선생님, 근데 Australians 예시는 왜 나오는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이에 대한 대답이 되고자 Plus Comprehension 자료를 첨부합니다. 지금 이 해설은 '재진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읽었다면, 뒤에 Plus Comprehension은 일반적 문장(General Sentence)와 구체적 문장(Concrete Sentence)사이의 관계, 그리고 예시와 일반적 문장을 어떻게 이으며 유기적으로 독해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LUS 접속사의 논리관계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있어서, 접속사는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이어지는 두 문장을 어떻게 읽으라는 '지시'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문장 사이에 For example이라는 예시가 있다면, 앞 문장은 뒷 문장보다 추상적인 문장이고, 뒷 문장은 그것을 구체화 시키며 설명하기 위한 '예시' 이니, 뒷 문장이 앞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 형태겠지요. 또한, 만약 In contrast라는 접속사가 있다면, 그건 앞문장과 뒷문장이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대조 시켜서 글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렇듯, 접속사는 내가 앞으로 글을 어떻게 이해해가며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접속사가 보여주는 문장간의 '연관성', 즉 '유기성'을 무시하게 된다면, 글이 이해가 안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꼭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that moderates the relationship with behavior is self-efficacy, or a judgment of one's capability to accomplish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People who have a high sense of self-efficacy tend to pursue challenging goals that may be outside the reach of the average person. People with a strong sense of self-efficacy, therefore, may be more willing to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 to attempt tasks or goals for which success is viewed as improbable by the majority of social actors in a setting. For these individuals, culture will have little or no impact on behavior. For example, Australians tend to endorse the "Tall Poppy Syndrome." This saying suggests that any "poppy" that outgrows the others in a field will get "cut down;" in other words, any overachiever will eventually fail. Interviews and observations suggest that it is the high self-efficacy Australians who step outside this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 to actually achieve beyond average.

*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 ** endorse: 지지하다

Q For example이라는 접속사에 유의하여, 뒤에 Australians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이해해보시오. 그리고 각 예시에서 For example 앞 부분에서 대응 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대응시켜 보시오.

PART A Comprehension

Solution!

접속사의 논리관계를 이해하며 읽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계속 이 책 전반적으로 당연한 말들만 하고 있지만, 학생분들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문제 역시 시험이 끝난 후, 저에게 '샘님, 여기서 오스트레일리아 인들이 왜 나와요?, 양귀비 신드롬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돼요' 라는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시와 주제문을 분리해서 읽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접속사의 논리관계는 앞 뒤 문장과 함께 이해하며 논리관계를 따져야합니다. For example, 이라고 예시를 말 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앞 문장들의 (General Sentence) 구체적 서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한 문장, 한 문장씩만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면 결국 글 전체에서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모두 파편 조각 난 상태로 다가올 것입니다.

Comprehension

People who have a high sense of self-efficacy tend to pursue challenging goals that may be outside the reach of the average person.

- 이 문장에서, 우리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일수록 보통의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목표에 도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eople with a strong sense of self-efficacy, therefore, may be more willing to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 to attempt tasks or goals for which success is viewed as improbable by the majority of social actors in a setting.

-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문화적으로 종속되어진 행동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접속사는 therefore 입니다. 즉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 이므로, 앞 뒤 문장이 '서로 같은 방향성'이고, 같은 이야기를 전개해나갈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므로, 결국 '보통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도전적 목표 추구' ≒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나가는 것' 이라도 이해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있는 문장 (for which success is viewed as~)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사회적 배우' (평균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일들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말이므로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 보통사람들보다 도전적인 목표에 도전 ≒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나가는 것. 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For these individuals, culture will have little or no impact on behavior.

- 이러한 개인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 에게는 문화는 적거나, 혹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나간다라고 했으므로, 사실 문화의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ulture will have little or no impact on behavior은 사실상, to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빈칸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 보통사람들보다 도전적인 목표에 도전 ≒ 문화적으로 종속된 행위 밖으로 나가는 것, 그러므로 문화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못미침. 으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PART A Comprehension

Comprehension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예시는 어떤 내용일까요? '당연히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문화가 영향을 못 미치는 것에 대한 예시일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종속'하고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문화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것이 앞문장의 예시이기 때문에 미리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뛰쳐 나간다', 다시 말하면 '문화가 이들에게 영향을 못준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있을 것입니다.

Interviews and observations suggest that it is the high self-efficacy Australians who step outside this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 to actually achieve beyond average.

역시나 그렇습니다. 결국 여기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앞문장에 대한 내용 확인입니다. 만약 저 접속사가 대조였다면 대조에 맞추어서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비유를 나타내는 similarly 였다면 공통점에 맞추어서, 지금처럼 예시라면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대응시키며 읽어야합니다. 이렇게 접속사에 담긴 논리관계를 한껏 살려주며 독해를 해야만 합니다.

PART A Comprehension

빈칸추론 풀이법 (2) 일반화

이해영역(Comprehension)

일반화의 어려움은 결국 '정답의 근거가 지문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지문은 일반화스러운 나열을 주고 난 다음에, 빈칸 뒷 문장에 빈칸 문장을 추론 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를 주는 등 재진술의 포인트 역시 같이 섞여있는 지문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던지 간에, 일반화는 결국 '나열 된 것들'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전적인 예시중에, 사과,배,포도,수박.. 빈칸이 나왔다면 뭐라고 생각할 건가요? 당연히 '과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빈칸 풀 때 다음 명제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무언가 뚜렷한 이야기 없이 계속해서 나열된다라는 느낌이 들면 공통점을 찾아보자!'

Q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17학년도 수능]

Temporal resolution is particularly interesting in the context of satellite remote sensing. The temporal density of remotely sensed imagery is large, impressive, and growing. Satellites are collecting a great deal of imagery as you read this sentence. However, most applications in geography and environmental studies do not require extremely fine-grained temporal resolution. Meteorologists may require visible, infrared, and radar information at sub-hourly temporal resolution; urban planners might require imagery at monthly or annual resolution; and transportation planners may not need any time series information at all for some applications. Again, the temporal resolution of imagery used should _____. Sometimes researchers have to search archives of aerial photographs to get information from that past that pre-date the collection of satellite imagery.

* meteorologist : 기상학자

** infrared: 적외선의

① be selected for general purposes
② meet the requirements of your inquiry
③ be as high as possible for any occasion
④ be applied to new technology by experts
⑤ rely exclusively upon satellite information

PART A

Comprehension

Solution!

위의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읽고 풀려고 할 때의 느낌은 어땠나요? 바로 풀 때 명확히 단서가 잡히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의 답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열 된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칸 추론 풀이 기법을 '일반화' (Generalization) 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반화'는 어떤 요소들이 '나열'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그런 상황이 제시 될 때는 '공통점'을 찾아야함을 기억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Comprehension

Temporal resolution is particularly interesting in the context of satellite remote sensing. The temporal density of remotely sensed imagery is large, impressive, and growing.

시간 해상도는 (센서가 특정한 지역의 화상을 얼마나 자주 기록하는가를 나타내는 것) 특히 흥미롭다 / 위성의 원격 감지의 측면에서. / 원격으로 감지되어진 사진의 시간적인 밀도는 크고, 인상적이고, 성장하고 있다고 위에 문장은 해석될 수가 있겠네요. 시간 해상도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temporal resolution (시간 해상도) 라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어서 좀 많이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모르는 단어는 그냥 temporal resolution 그 자체, 마치 그냥 이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Satellites are collecting a great deal of imagery as you read this sentence. (However, most applications in (1) geography and environmental studies do not require extremely fine-grained temporal resolution.

[네가 이문장을 읽을 때도 위성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사진을 모으고 있다 / 하지만 / 대부분의 적용들은 / 지리학과 환경학 공부에 있어서 / 요구하지 않는다 / 극도로 결이 고운 시간해상도를] 라고 위의 문장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는 항상 역접은 집중하여서 읽는다는 원칙. 어쩌면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있어서 당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접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시간해상도에 있어서 '지리학, 환경학' 에서는 결의 고움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번 표시 하도록 합시다.

(2) Meteorologists may require visible, infrared, and radar information at sub-hourly temporal resolution; (3) urban planners might require imagery at monthly or annual resolution; and (4) transportation planners may not need any time series information at all for some applications.

(2) 기상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적외선 레이더 정보를 시간 해상도에서 요구 / (3) 도시 계획자들은 한 달에 한번 혹은 일 년에 한 번 요구 / (4) 운송 계획자들은 시간적 시차 두는 정보 필요하지 않음. 정도로 정보를 정리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이 모든 것들이 '시간 해상도'와 관련이 되어있고, 각 학문마다 필요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Again, the temporal resolution of imagery used should .

Again,~ 이 표현은 다시 말하지만 이라는 정도로 해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한다는 것은 빈칸 앞의 내용을 받는다는 의미겠네요. 그런데 빈칸 앞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PART A Comprehension

Comprehension

(1) geography and environmental studies do not require extremely fine-grained temporal resolution. / (2) Meteorologists may require visible, infrared, and radar information at sub-hourly temporal resolution; / (3) urban planners might require imagery at monthly or annual resolution; / (4) transportation planners may not need any time series information at all for some applications.

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열 되고 빈칸이 나왔다? 결국 이 나열된 것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으라는 '일반화' 문제라는 것을 Catch 하는 근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열 된 4가지 정보는 모두 '시간 해상도'에 대한 다른 요구사항 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데서 근거가 나오는게 아니라, 이 문장들을 종합하면 빈칸에 답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4개의 항목은 모두 '시간 해상도'에 대한 요구사항이지만, 그건 학문별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리학, 환경학, 기상학.. 등) 그러니까. 시간 해상도의 사용되는 이미지는 '각 학문의 다른 요구사항을 반영' 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1),(2),(3),(4) 나열된 요소들을 일반화 시킨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① be selected for general purposes (오답률 1위 16% 선택)

– 일반적 목적을 위해 선택되어져야만 한다 : 각 개별 학문들이 다르게 요구하는 것은 '개별성' 이지, '일반성'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 목적을 위해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학문마다 요청되는 다른 요구사항을 무시한다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나열된 요소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역방향!

② meet the requirements of your inquiry

– 당신의 연구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 이 쪄의 당신은 각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반화 시킨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생각했던 '각 학문의 다른 요구사항 반영' 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선택지가 나열 된 (1),(2),(3),(4)번 선택지를 모두 종합하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MEMO

PART A Comprehension

빈칸추론 풀이법 (3) G-S구조

이해영역(Comprehension)

글의 구조는 읽을 텍스트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영어영역에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해칠 수 있는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글의 구조라는 것은 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어떤 '야매' 스킬로 변질해버려서 학생들이 잘못 받아들이는 형태로 바뀌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G-S구조는 영어 글을 써내려가는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서술 방식이고, 사실 대부분의 수능영어가 이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G-S구조 에 대한 학습은 Intro 파트에서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INTRO 03. 구체적인 문장은 일반적 문장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빈칸추론을 풀이하는데 활용해보도록 합시다. 아래 문제를 풀고 정확히 그 구조를 잡아보는 것이 이 부분의 목표입니다.

Q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When confronted by a seemingly simple pointing task, where their desires are put in conflict with outcomes, chimpanzees find it impossible to exhibit subtle self-serving cognitive strategies in the immediate presence of a desired reward. However, such tasks are mastered _____ . In one study, chimps were confronted by a simple choice; two plates holding tasty food items were presented, each with a different number of treats. If the chimp pointed to the plate having more treats, it would immediately be given to a fellow chimp in an adjacent cage, and the frustrated subject would receive the smaller amount. After hundreds and hundreds of trials, these chimps could not learn to withhold pointing to the larger reward. However, these same chimps had already been taught the symbolic concept of simple numbers. When those numbers were placed on the plates as a substitute for the actual rewards, the chimps promptly learned to point to the smaller numbers first, thereby obtaining the larger rewards for themselves.

① as immediate rewards replace delayed ones
② when an alternative symbol system is employed
③ if their desires for the larger rewards are satisfied
④ if the value of the number is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the reward

PART A

Comprehension

Solution!

저는 원래 글을 '구조적'으로 읽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G-S구조 만큼은 제대로 알아둔다면 매우 독해할 때 편리하고, 빈칸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을 얻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에 대한 이해 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지문의 초반부가 추상적이기도하고 (self-serving cognitive strategies? 뭔소리지 하셨을 것입니다) 지문과 뒤에 나오는 구체적 예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Catch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래의 문제를 General-Speicifc 구조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f) 이 문제는 정답률이 많이 낮았는데요, 빈칸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도 있겠지만, 사실 엄청난 낚시 선지가 있어서 정답률이 엄청 폭망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G-S구조를 잘 학습하기 위해 이 지문을 보고 있으므로 그 선택지는 뺀 상태로 4지선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낚시 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prehension

When confronted by a seemingly simple pointing task, where their desires are put in conflict with outcomes, (=A)

- General 하게 서술 된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결 시키도록 할게요. 이 문장의 내용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A의 내용은 겉보기엔 단순해보이는 가리키는 일, 근데 그일이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대로 잘 안되는 무언가가 있나봅니다. 일단 A라고 쓰겠습니다.

chimpanzees find it impossible to exhibit subtle self-serving cognitive strategies in the immediate presence of a desired reward. (=B)

- 침팬지는 즉각적인 욕망되는 보상의 존재속에서 미묘하게 자기 잇속을 차리는 인지전략들을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뭔소리여?'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B)라고 지정하겠습니다.

However, such tasks are mastered _____. (=C)

-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어진다라고 얘기하며 빈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빈칸엔 뭐가 들어가야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C라고 지정하겠습니다.

In one study, chimps were confronted by a simple choice; two plates holding tasty food items were presented, each with a different number of treats.

-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이 느껴지시나요? 앞전까지는 일반적인 단어들과 내용들로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었을 것입니다) 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는 '침팬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험 내용'이 등장하면서, '아, 이제 구체적인 (Specific, Concrete) 이야기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글은 실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침팬지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 두접시를 받았고, 그 접시는 보상의 종류가 다르게 존재하고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실험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는 어렵지 않은 듯 합니다.

PART A Comprehension

Comprehension

If the chimp pointed to the plate having more treats, it would immediately be given to a fellow chimp in an adjacent cage, and the frustrated subject would receive the smaller amount.

- pointed to? 라고 하시면 벌떡 생각이 드셨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었던 A,B,C의 상황중에서 '가리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었던 부분은 A였습니다. A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침팬지가 가리키는 일을 놓여진다고 했는데, 그 일이 자신의 욕구와 결과가 충돌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었죠? 이 문장을 나눠서 이해해봅시다.

If the chimp pointed to the plate having more treats, - 가리키는 일을 의미, A의 문장에서는 When confronted by a seemingly simple pointing task, 에 해당합니다.

it would immediately be given to a fellow chimp in an adjacent cage, and the frustrated subject would receive the smaller amount.

- 그렇다면,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바로 침팬지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이 문장인 것입니다. 즉 A파트에서는 where their desires are put in conflict with outcomes,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G-S구조가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느끼시나요?

After hundreds and hundreds of trials, these chimps could not learn to withhold pointing to the larger reward.

- 그럼 눈치빠른 분들은 벌써 이 문장을 B에 연결하고 계실 것입니다. 수백번의 시도를 해봐도, 이 침팬지들은 더 큰 보상을 가리키는 것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건 '자신의 잇속을 차리는' 인지 전략이 불가능해졌음을 깨닫는 부분, 즉 B part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지요! => chimpanzees find it impossible to exhibit subtle self-serving cognitive strategies in the immediate presence of a desired reward. (=B)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However, these same chimps had already been taught the symbolic concept of simple numbers. When those numbers were placed on the plates as a substitute for the actual rewards, the chimps promptly learned to point to the smaller numbers first, thereby obtaining the larger rewards for themselves.

- 역접마저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부분은 그럼 뭐에 대한 부분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빈칸이 포함된 C part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앞전에 글에서 못봤던 부분을 C Part 속 빈칸에 집어넣으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보는 내용은 바로 symbolic concept (상징적 개념)을 침팬지들이 배웠고, 침팬지들이 그것을 '직접적 보상에 대한 대안물'로 교체되어졌을 때, 그 침팬지들이 바로 작은 숫자들을 가리킬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빈칸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such tasks are mastered'의 상황일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그럼 '상징적 개념으로 보상이 교체되어진다면' 정도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G-S구조가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을 느끼셨나요? 영어에도 이러한 '구조적' 풀이가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정답은 ② when an alternative symbol system is employed입니다.

cf) 한편 가장 많은 학생들을 낚았던 대박 낚시 선지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when material rewards alternate with symbolic ones

symbolic .. 도 너무 매력적이고, alternate ? 왠지 alternative가 생각나서, 아! 물질적 보상을 상징적인걸로 대체(대안이니까) 한다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alternate with은 ~을 대체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A와 B를 번갈아 나타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저 선택지를 해석하면 물질적 보상과 상징적인 보상을 번갈아 제시할 때가 되는거죠. 의미를 오해할 법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 선택지를 찍고 틀렸습니다. 단어공부! 해둡시다ㅎㅎ

MEMO

PART B Technique

문장삽입 B type(내용상 흐름)
(1) 같은 말끼리는 붙어있어야 한다

기술영역(Technique)

21학년도 수능대비 모의평가에서 이때까지의 '단절'의 흐름과는 다른 내용의 흐름과 정확한 독해에 기반을 해야하는 스타일이 6,9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습니다. 새로은 스타일의 출제였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당황했었고, 기존의 출제코드에서 조금 어긋난 문항들이 출제되었기에 이를 어찌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 대립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2학년도 수능 기출에서도 그러한 흐름은 계속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처럼 가시적 근거가 많이 강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역시 뚜렷하게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여전히 A type 역시 같이 한두문제 섞여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여, 학생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대답을 싣습니다. 저의 분석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Compounding the difficulty, now more than ever, is what ergonomists call information overload, where a leader is overrun with inputs — via e-mails, meetings, and phone calls — that only distract and confuse her thinking.

Clarity is often a difficult thing for a leader to obtain. Concerns of the present tend to seem larger than potentially greater concerns that lie farther away. (①) Some decisions by their nature present great complexity, whose many variables must come together a certain way for the leader to succeed. (②) Alternatively, the leader's information might be only fragmentary, which might cause her to fill in the gaps with assumptions — sometimes without recognizing them as such. (③) And the merits of a leader's most important decisions, by their nature, typically are not clear-cut. (④) Instead those decisions involve a process of assigning weights to competing interests, and then determining, based upon some criterion, which one predominates. (⑤) The result is one of judgment, of shades of gray; like saying that Beethoven is a better composer than Brahms. [3점]

* ergonomist: 인간 공학자

** fragmentary: 단편적인

PART B

Technique

Solution!

이 문제의 가시적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Alternatively 라는 접속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학생들은 이 접속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평가원의 의도는 이런 접속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도록 해라 라는 의미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분명히 Alternatively를 학생들이 모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평가원은 엄청나게 치밀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출제의도가 Alternatively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어떻게 풀길 바랬던 걸까요? 바로 같은 부분의 이야기,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붙어있어야만 한다 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길 바랬던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Comprehension

Compounding the difficulty, now more than ever, is what ergonomists call information overload, where a leader is overrun with inputs —via e-mails, meetings, and phone calls — that only distract and confuse her thinking.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것은, 어느때보다도 인간에 대한 공학자들이 '정보과부화'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가중된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 지도자는 자신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메일, 회의, 통화를 통한 조언에 의해서 압도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결국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가중된다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larity is often a difficult thing for a leader to obtain. Concerns of the present tend to seem larger than potentially greater concerns that lie farther away.
명확함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얻기에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려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잠재적으로 더 큰 우려보다 더 커보이는 경향이있다고 합니다. 즉 현재의 우려가 미래의 우려보다 더 크게끔 느껴진다라는 말이죠.

(②) **Alternatively,** the leader's information might be only fragmentary, which might cause her to fill in the gaps with assumptions —sometimes without recognizing them as such.
2번 문장에서 결국 Alternatively 라는 접속사가 낯설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미를 그 대신에, 그렇지 않으면 정도로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어?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앞에 오는 내용이 좀 이상한데? Alternatively가 남는 것 같은데? 주어진 문장과 alternatively가 대응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명료하게 가시적근거를 활용해서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Alternatively라는 접속사가 학생들에게 이 시험 당시에는 익숙치 않은 접속사였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모른다라고 전제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후의 시험에서, alternatively 라는 접속사가 나온다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처럼 돌아가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Alternatively, 지도자의 정보는 그저 단편적인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지도자가 공백을 '가정들, 추정들' (assumptions) 로 채우게 끔 하는데, 때로는 이러한 추정으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보의 양이 단편적이고 모자라서' 지도자가, 스스로 거기 정보들 사이의 공백을 '상상'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거죠. 그러면서 지도자는 이러한 정보의 공백을 상상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ART B Technique

Comprehension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Alternatively, 정보의 양이 모자라서 지도자가 상상함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지도자가 압도당함' 과 '정보의 양'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alternatively가 왠지 '대조'의 접속사 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앞뒤로 내용이 주어진 문장은 정보의 양이 많을 때, alternatively 뒤에는 정보의 양이 적을때를 얘기하고 있으므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번을 찍었다면 아주 센스있게 문제를 잘 푼 친구이고,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붙여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 물론 이렇게 풀었더라도, 엄격히 말하자면 alternatively 라는 접속사의 논리관계를 활용해서 푼 것이 아니므로 제대로 풀었다라고 할 순 없습니다만, 시그니처가 추구하는 것은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전략이므로, 이 문제를 풀때는 이렇게 풀었어야한다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 고 난 다음에는 alternatively라는 접속사의 의미를 암기해놓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 수능에 Even so가 나오고 난 다음, 뒤에 기출문제에서 몇 번 더 나온 것처럼,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③) And the merits of a leader's most important decisions, by their nature, typically are not clear-cut. [가장 많이 고른 오답 2위]

- 3번을 골랐던 학생들은 오답 순위중 전체 2위에 해당할 만큼많았습니다. 3번 문장은 지도자의 중요한 결정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과는 무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Instead those decisions involve a process of assigning weights to competing interests, and then determining, based upon some criterion, which one predominates. [가장 많이 고른 오답 1위]

- 4번을 가장 많이 학생들이 오답으로 꼽았습니다. Instead라는 가시적인 근거가 있으니 활용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those decisions'를 주어진 문장에서 받을만한 말들이 있어야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문장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Compounding the difficulty, now more than ever, is what ergonomists call information overload, where a leader is overrun with inputs —via e-mails, meetings, and phone calls — that only distract and confuse her thinking.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 'those decsions'라고 받을 만한 '결정들'이 없습니다. 또한 4번 문장에서는 결정에 있어 상충되는 이익에 중요성을 배정한 다음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것이 우위를 차지하는지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문제에 대한 지도자의 해결이라면, 앞 문장은 문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Instead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선택지는 Instead도, those decsions도 적절하지 않게 대응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오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⑤) The result is one of judgment, of shades of gray; like saying that Beethoven is a better composer than Brahms. [3점]

5번 선택지는 그렇게 내린 지도자의 결정이라는 것은 회색의 미묘한 차이를 띨 정도로 뚜렷한 차이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앞 문장과 잘 연결되고, 주어진 문장과의 접점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좀 더 거시적인 과정과 흐름의 맥락에서 분석 역시 가능합니다. 내용상 흐름 (3) 과정 순서의 흐름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MEMO

PART B Technique

문장삽입 B type(내용상 흐름)
(2) G-S구조/재진술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영역(Technique)

우리가 앞전에 인트로 부분이나 빈칸에서 얘기했던 GS구조, 아니면 재진술이 문장삽입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문장에서 예측 가능한 글의 구조를 바탕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주어진 문장에 대한 내용이 지문 내에서 어떻게 재진술되는지를 연결함으로써 문제 해결 역시 가능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기 실은 까닭도 후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G-S, 즉 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연결될 수도 있고, 주어진 문장속에 어떤 내용이 재진술 되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Q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2020학년도 사관학교]

Another, unexpected, consequence is the ability of bacteria to overcome the mechanisms that give antibiotics their efficacy, rendering them useless.

Initially seen as miracle drugs, antibiotics, once they became widely available, were used not only for bacterial infections, but for everything from the common cold to headaches. (①) Indeed antibiotics were a godsend, drastically improving medicine and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chieved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②) Like many technological fixes, along with the positive benefits of antibiotics came negative side effects. (③) Antibiotics can kill the many beneficial bacteria in the human body, for instance those that promote digestion, along with invasive bacteria. (④) Antibiotic resistance, first a curiosity seen in the laboratory, became common among populations of bacteria exposed to antibiotics. (⑤) In a matter of yea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penicillin, penicillin-destroying staphylococci appeared in hospitals where much of the early use of penicillin had taken place.

* staphylococci: 포도상구균

PART B

Technique

Solution!

이 문제는 주어진 문장에서 Another consequence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아, 내용이 나오다가 주어진 문장을 경계로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걸 기억해둬서,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정확히 대응시켜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장 속에, the ability of bacteria to overcome the mechanisms that give antibiotics their efficacy, rending them useless라는 말과 정답이 되는 4번 선택지 Antibiotic resistance 가 같은 말로 재진술됨으로써 연결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omprehension

Another, unexpected, consequence is the ability of bacteria to overcome the mechanisms that give antibiotics their efficacy, rendering them useless.

– 주어진 문장을 봅시다. 기대하지 않은 또 다른 결과는 박테리아가 항생제가 효능을 부여하는 체계를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항생제들(= them = antibiotics)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읽어내고 난 다음 밑에 문장들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Initially seen as miracle drugs, antibiotics, once they became widely available, were used not only for bacterial infections, but for everything from the common cold to headaches.

– 처음에는 '기적의 약'이라고 보였던 항생제는 단순히 박테리아의 감염에 있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단순 감기부터 두통까지 모든 것에 활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①) Indeed antibiotics were a godsend, drastically improving medicine and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chieved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 게다가, 항생제라는 것이 하느님이 주신 것이었고 (갑작스럽게 발견하게 되었다 그정도의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제약들을 발전시켰고,그리고 예상수명의 증가에 있어서 엄청나게 공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②) Like many technological fixes, along with the positive benefits of antibiotics came negative side effects.

– 많은 기술적 해결책들과 마찬가지로, 항생제의 긍정적인 이득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져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치되어 있는 구문인데,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문장에는 어디에도 'However, but,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등' 역접과 대조의 접속사가 없지만,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장 자체만으로 항생제의 긍정적인 이야기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로 바뀌는 역접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접속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PART B Technique

Comprehension

(③) Antibiotics can kill the many beneficial bacteria in the human body, for instance those that promote digestion, along with invasive bacteria.

– 항생제에 대한 저항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이 저항 반응은 분명 앞에 이야기했었던 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는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지만, 또 한편으론 부작용에 대한 것인 것 맞죠? 그러면 이걸 'Another consequence'로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4번에 대응 시켜도 매우 잘 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시키고 나면, Antibiotic resistance (항생제에 대한 저항반응)에 대해서 주어진 문장 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the ability of bacteria to overcome the mechanisms that give antibiotics their efficacy, rendering them useless.

= **Antibiotic resistance**

– 이렇게 재진술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박테리아가 항생제가 먹히던 메커니즘을 넘어서고, 극복해서 굴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저항반응이 생기게 되는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이 내용에 대해서 재 진술하고 있는 주어진 문장이 4번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갑자기, 이로운 박테리아까지 죽게된다라는 내용에서 저항반응으로 왜 넘어가지? 어 소재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응시켜봐도 똑같은 루틴대로 풀 수 있으니 어떻게 풀든 정답을 맞추었다면 글을 잘 읽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